



김승기 무주교육장, 학력지원센터 방문·격려

김승기 무주교육장은 지난 23일 무주학력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무 담당자들을 격려했다.

무주학력지원센터는 지난 4월 15일부터 주말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관내 학생들에게 학습지원실을 개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 교육장은 "학생들이 이렇게 휴일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모습 그 자체가 아름답고 의미가 있다"고 격려하며 "앞으로도 관내 학생들의 학업 역량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무주교육지원청은 현재 무주학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무주중학교와 무주도서관, 생누리작은도서관 등과 함께 '무주학력지원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시월 기간 2주 전부터 밤 11시까지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관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대회 끝까지 응원해 준 모두에 감사”

전북대병원, 제17회 전국 국립대병원 축구대회서 '우승'

4년 만에 재개된 전국 국립대학교병원 축구대회에서 전북대학교병원 이 우승의 영예를 차지했다.

전북대병원은 이번 대회에 앞서 제14회와 제16회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3번째 우승트로피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충남대학교병원의 주최로 열린 제17회 전국 국립대학교병원 축구대회에서 병원 내 동호인 모임인 전북대병원 축구동호회(회장 소화기외과 김진영 교수)가 지난 22일 대전 인연생활체육공원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총 10개의 국립대병원이 참가한 이날 대회는 주최 측의 추첨을 통해 A조 충남·경북·제주·(진주)경상·(창원)경상 B조 전북·충북·부산·강원·분당서울로



2개의 예선조로 각각 구성됐다. 조별 리그 결과, 각 조에서 1위를 한 전북대병원과 충남대병원이 결승전에 진출했다.

두 팀은 치열한 접전 끝에 종료 30초를 남기고 전북대병원이 결승골을 넣으며 최종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최우수선수상은 윤현조(전북대병원 축구동호회 부회장 유방갑상선외과 교수) 선수가 수상했다.

전북대병원 축구동호회 김진영 회장은 "이른 아침부터 행사 마지막까지 선수와 선수가족들을 포함한 40명의 회원 모두가 이뤄낸 성과이며, 대회 끝까지 단합된 모습으로 응원해준 동호회 회원과 가족 모두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대산초 강정화·임형관 학생, 태권도연맹 장학생 선발

고창 대산초등학교 태권도부 강정화·임형관 학생이 한국대학태권도연맹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이에 따르면 한국대학태권도연맹(회장 이명철)은 지난 21일 고창군립체육관에서 열린 제31회 청두하계세계태권도대회 파견 태권도 국가대표선수선발대회에서 강정화·임형관 학생에게 장학금 50만원씩을 수여했다.

이번 장학금 수여는 고창군태권도협회(회장 박원성), 전라북도태권도협회(회장 고봉수)가 한국대학태권도연맹과 협력해 지역의 태권도 꿈나무를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

이에 앞서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역에서 선발된 대표선수와 학부모, 감독교사를 격려하고, 오는 5월 개최되는 제51회 전국소년체전에서 선전을 기원했다.

성경찬 전 전북도의원은 체육인으로서 태권도 대표선수를 길러낸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35년 만에 고창군에서 대표선수가 선발된 것에 기쁨을 표하고, 더욱 수련해 실력을 키워나갈 것"을 당부했다.

송미정 교장은 "지역과 협회에서 함께 관심을 갖고 태권도 대표학생에 대해 격려와 장학금을 지원해 준 것에 감사 드린다"면서 "대표선수를 포함한 태권도 선수들의 실력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학교에서도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제27회 진안 마이산컵 전국 탁구대회 성료

진안군체육회(회장 정봉문)는 지난 22일에서 23일까지 2일간 문체체육회관에서 열린 제27회 마이산컵 전국 탁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단체전(6개부)과 개인전(7개부)으로 나누어 치러졌으며 전국 탁구 동호인 920여명이 참가하여 이틀간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뽐내며 자유를 겨뤘다.

경기 결과 단체전에서 혼성ac~4부 김형경 탁구클럽(김형경 외 2명), 혼성희망부 7~8부 허은경 탁구팀(김성진 외 3명), 남자 5~6부 무주 반딧불이팀(박선수 외 2명), 7부 남원거점스포츠클럽(송광섭 외 2명), 여자 1~4부 여인 천하팀(이양미 외 2명)과 5~6부 허은경 탁구팀(김화영 외 3명)이 각각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개인전에서는 혼성 ac~4부에서 정성욱(정성욱탁구클럽), 남자 5~6부 노송(군산시타리클럽), 7부에 김승원(전주술레탁



구), 남자희망부 이지형(오송클럽), 여자 1~4부 현경하(전주SM탁구), 5~6부 이미숙(허은경탁구), 여자희망부 김수영(OK탁구)가 각각 우승을 거머쥐었다.

진안군은 대회 기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 선수, 임원, 관람객까지 약 1,000여

명이 진안을 방문하여 진안의 맛과 멋을 즐기고 가면서 대회와 연계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대회였다고 분석했다.

전춘성 군수는 "올해로 27회째를 맞이한 마이산컵 전국 탁구대회가 1997년을 시작으로 긴 시간 동안 탁구 저변확대 및 국민건강증진에도 크게 기여하는 명실상부 전국대회로 우뚝 섰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탁구 동호인 간 교류와 우호증진에 도움이 되고 건전한 여가문화로 정착될 것"을 기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덕진경찰, 탁구대회 개최... 체결증진·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

전주덕진경찰서(서장 김태형)는 소통과 화합의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전주덕진경찰서 탁구대회'가 지난 5일 시작으로 24일 모든 일정을 마쳤다.

탁구대회는 유연근무 및 종식시간, 자투리 시간 등 근무 시간 이외의 시간들을 활용해 경향이 이뤄졌으며, 인사혁신처 공무원복무제도를 준수하고 진행했다.

'전주덕진경찰서 탁구대회'는 복식 경기로 진행됐으며, 덕진서 소속 9개 과와 11개의 지구대·파출소에서 각 2명이 1팀으로 출전했고 치열한 경쟁속에 송준호 경감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탁구대회는 총 20개 팀이 출전해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최종 1·2·3·4위 팀에게는 경찰서장 표창, 포상휴가, 격려금 등이 부상으로 수여될 예정이다.

송준호 경감 정보인보외사과는 "경기 중 찰나의 순간에 응원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며 더욱 힘을 낼 수 있었다. 소속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태형 경찰서장은 "주민들의 치안민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먼저 내부적으로 활력있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임실군, 임실동중교서 치매 파트너 교육 실시

임실군 치매안심센터가 지난 21일 임실동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 및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치매 파트너 교육을 실시했다.

치매 파트너는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따뜻한 동반자를 말하는 것이다.

이번 교육은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과 치매 극복 선도학교 지정 유지를 위해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치매안심센터 소개 △치매 파트너 역할 △치매 인식개선으로 참여 학생들이 치매 환자와 가족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은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해 바로 알 수 있었고 앞으로 치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날 때 두려움보다는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김대문 보건의원장(치매안심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완산소방서, 장애인 어울림 잔치서 소방안전체험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장수)는 지난 21일 장애인의 날 기념 제1회 전북 발달장애인 어울림 잔치에서 소방안전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어울림 잔치는 전북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기관 연합회 주관으로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열렸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전주완산소방서와 전주완산여성회소방대는 발달장애인과 기관 종사자 500여 명이 대상으로 일상생활 중 일어나는 심정지 환자 대처요령과 심폐소생술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최초목격자의 119신고 및 대응요령 △심폐소생술 실시 방법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해임리법 안내 △소화기 체험 등을 교육해 도민의 안전의식 향상에 중점을 뒀다.

김장수 서장은 "심정지 상황 시 최초 목격자의 발빠른 심폐소생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체험부스 운영으로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남원시보건소,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남원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중·장년 여성의 우울감과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 위해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마음건강사업의 일환으로 중·장년여성을 대상 "오늘도 기분 좋은 출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4회기에 걸쳐 시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사 및 정신건강인식개선교육(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예방관리)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건강 스타링 검사에서 발견한 고위험군에 대하여 개별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정신과 상담 기록에 대한 걱정과 진료 비용문제 등으로 정신건강 상담을 기피하는 대상자를 위해 위촉된 정신과 전문의 상담도 진행하는 등 정신과 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원=김기우 기자



한전 군산지사, 빛나는 우리동네 만들기 환경 활동

한국전력공사 군산지사(지사장 구민모, 노조위원장 고동훈)는 24일 ESG 경영실현 및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환경정화 활동은 봄 행락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관광지 일대를 집중적으로 정비해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모인 약 20여 명의 한전 군산지사 직원들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군산 조성을 위해 근대역사박물관 초원시진관, 이 상당 등 군산 주요관광지를 순회하며 환경정화 실시와 함께 전력설비를 육안으로 꼼꼼히 점검하며 깨끗하고 안전한 관광지 조성에 구슬땀을 흘렸다.

구민모 군산지사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바탕으로 관광객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군산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 뿌듯하다"고 밝혔다.

/이영아 기자

전북제일고, 재경동문회 장학금 기탁

전북제일고등학교(교장 나종선)는 24일 재경동문 장학회(회장 배해문)와 장학금 기탁 협약식을 맺고 매년 학생 1인당 3백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재경장학회와 세우회 회원 등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1억7,700만 원의 멘토 장학금 및 재경동문장학금을 모금 발전과 후배들을 위해 기탁했다.

전북제일고등학교에서는 장학사업이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본 계획과 세부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규정과 용도에 맞도록 장학금이 관리 집행되도록 이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한편 배해문(13회 동문) 회장은 지난 13년 동안 개인적으로 5,550만 원을 멘토 장학금으로 전달한 바 있다.

/장은성 기자

부안교육지원청, 덕나무한지체험관 미술교사 협의회

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장기선)은 지역과 상생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덕나무한지체험관 마을교사 30명을 초청해 프로그램 운영 협의회를 최근 실시했다.

이 협의회는 '콩닥콩닥'의 프로그램 운영에 마을교사가 직접 참여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폐교 활용 교육이라는 교육목표를 공유하고 △학교와 지역과의 교육적 협력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한 마을교사는 "앞으로 학교 교육과 부안 지역 발전을 위해 콩닥콩닥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안교육지원청은 '미래교육을 추진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실현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마을교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기자